



창단 20주년을 맞는 광주현대무용단은 올 가을 무용단의 대표작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사진은 2009년 전국무용제 금상 수상작인 '천개의 공간'. <광주현대무용단 제공>

광주무용 미래를 이끈다

광주현대무용단 창단 20주년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2회 수상 등 화려한 날갯짓 역사가 된 20년 작품세계 한데 묶어 하반기 무대에 유아·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젝트도 구상

지금껏 명성이 조금 퇴색하기는 했지만 광주 현대무용단은 여전히 '무향(舞鄉)'으로 불린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세를 보여온 장르는 발레. 조선대 임지형 교수가 학교 제자들을 중심으로 광주현대무용단을 창단했던 1990년엔 '현대무용'의 위상이 극히 낮았었다.

적박한 지역 현대무용계에 큰 흔적을 남긴 광주현대무용단이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는다. 20년 세월 동안 힘든 적도 많았지만 광주현대무용단은 꾸준히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내로라하는 큰 상을 거머쥐며 광주 무용의 우수성을 알렸고, 다양한 소재의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광주현대무용단은 화려한 수상 경력이 눈에 띈다. 올해로 18회 행사를 치른 전국무용제에서 광주현대무용단은 대통령상을 두번 수상했다. 심청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한 '물·밀 꽃잎'으로 2003년 대통령상을 받았고 2년 후에는 '레밍턴'으로 또 다시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는 '천개의 공간'이 금상과 안무상·연기상 등을 받았으며 1996년에도 '아라리오'로 금상을 수상했다. 서울무용제에서 '푸른 나무'로 우수상도 받았다.

광주현대무용단은 젊은 안무가들을 꾸준히 배출해내며 지역 무용계를 탄탄하게 하고 있다. 창단 초창기에는 임지형 교수가 대부분 안무를 했지만 이후 이숙영(레밍턴), 박종임(천개의 공

감), 조소희(아름다운 기억)씨 등이 작품을 만들어 인정을 받았고 김미선씨 등도 꾸준히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또 무용단이 주최하는 '지역 춤 작가전'과 '광주현대춤 페스티벌'은 뛰어난 창의성이 돋보이는 지역 젊은 무용가들의 발표무대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광주현대무용단은 창단 20주년을 맞아 무용단의 역사를 정리하는 공연을 준비중이다. 북부터 준비에 들어가 가을께 무용단의 대표작들을 한꺼번에 무대에 올리고 창단 멤버들이 무대에 오르는 것도 구상중이다.

전국무용제 수상작인 '레밍턴'과 '천개의 공간', 화순 운주사의 천불천탑 설화를 소재로 한 '천불, 그 천년을 꿈꾸다' 등 모두 세 작품으로 광주현대무용단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무대다.

올해는 처음으로 무대 작품 이외의 프로젝트에도 눈길을 돌릴 예정이다. 무용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무용 교육을 구상중이다. 무용

이야말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장르. 미술·음악 등 타 분야의 경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용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현실이다.

현재 광주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둔 상태며 공모에서 탈락하더라도 어린이집 등에서 적은 규모로 봉사 차원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 무용단을 마음으로 응원할 후원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구상중이다.

무용단의 역사를 담은 자료집도 낸다. 지금까지 무대에 올렸던 작품들의 포스터와 작품 소개 등을 실고 창단 멤버 등 무용단을 거쳐간 단원들의 현황을 정리할 계획이다.

임지형 교수는 "오랜 시간 동안 단원들이 다 같이 땀 흘리고 열정적으로 활동한 덕분에 지금의 광주현대무용단을 만들 수 있었다"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올 한해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이준립 울산서 개인전

화려한 꽃과 숲을 환상적인 색채로 표현하고 있는 서양화가 이준립씨가 오는 10일~20일 울산 현대백화점 울산점 갤러리H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정원'을 주제로 아름다운 색감과 서정적 이미지로 요정이 살 것만 같은 동화 속 한 장면을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사슴과 자연거를 탄 여인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상향을 그려냈다.

조선대 회화과를 졸업한 뒤 전남도미술대전대상, 전남청년작가상 등을 받았고 서울, 광주, 여수 등지에서 15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무등회, 새벽, 여수청년작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52-228-10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원-산책'

서예가 조기동 가족의 '예술사랑'

시립미술관 '용곡예가' 전 서예·한국화 등 선보여

설 연휴를 맞아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은 9일~3월21일까지 남도의 대표 예술가 집안인 서예가 용곡 조기동 선생 가족 7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예향·용곡예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동국전체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용곡의 서예 작품과 도예가 조재호씨를 비롯해 그의 자녀 7명의 서예, 한국화, 도자기, 사진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용곡은 옥동 이서, 원고 이광사, 송곡 안규동 선생으로 이어지는 남도 동국전체의 맥을 이어 남도 서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한자 서예 기본서법, 유공권 서법첩, 서예 신지도법 교본 등의 저서를 발간해 후학을 지도했다.

이번에 출품된 그의 작품은 막힘없는 필선에 무한한 생명력이 살아있



예술을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용곡 조기동 선생의 가족들. 왼쪽부터 진호, 정아, 화영씨, 용곡, 용곡의 처 차정애, 성욱, 영랑, 재호씨.

고, 단아한 멋이 스며 있어 서예를 감상하는 참 맛이 느껴진다.

또 그의 장남 재호씨는 이번 전시에서 특유의 질감으로 조형성을 살린 도예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화가인 장녀 정아씨는 불교 문양을 모티브로 한 태고의 신비를 화폭에 담아냈다.

이 밖에 둘째 딸인 영랑씨와 셋째 딸 화영씨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문

인화·서예 작품을 선사하고, 넷째 딸 성욱씨는 불화와 분청사기를 선보인다. 사진 작가인 막내 아들 진호씨는 아버지의 작업 모습을 담은 사진 작품을 출품했다.

한편 용곡의 가족은 모두가 예술의 길을 걷고 있어 예술계 안팎에서는 그의 호를 따 '용곡예가'라고 부르기도 있다. 문의 062-613-714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호남예술제 최고상 출신 최현호 피아노 독주회

10일 유·스퀘어문화관



피아니스트 최현호씨가 1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첫번째 독주회를 갖는다.

광주에고를 수석 졸업한 후 현재 서울대 음악대학 기악과 2학년 재학중인 최씨는 지난해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금호 영아티스트 콘서트 오디션'에 합격한 촉망 받는 젊은 연주자다. 서울 금호아트홀 독주회는 오는 2011년 4월에 잡혀 있다.

최씨가 이번 연주회에서 들려줄 레퍼토리는 다양하다. 바하의 평균을 클라비어곡집 1권 중 '전주곡과 푸가 3번', 슈베르트의 '소타나 D단조 작품 784', 쇼팽의 '안타네 스피아나토와 대 폴로네이즈 작품 22', 리스트의 '돈 주앙의 추억' 등이다.

광주에고 재학 당시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최씨는 한국 리스틀 콩쿠르에서 1등상을 받았으며 KBS 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갖기도 했다.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

'사랑실은 노래봉사단' 설맞이 무대

9일 민들레 요양원서 421번째 사랑의 공연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이 설맞이 무대 9일 오전 10시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시설인 광주시 남구 봉산동 민들레 요양원에서 위문공연과 가족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설맞이 선물 전달을 시작으로 채나리, 이종찬, 장혜진, 국승봉, 황혜금, 신은실, 무정훈 씨 등이 출연, '우연히', '남아', '사랑사랑', '대

찬 인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또 박성용 씨의 '신비한 마을 세계'와 코미디 쇼 '웃으며 삼시대', 김진희 발라댄스팀의 발라댄스 한마당 등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됐다.

이외에도 KT사랑봉사단, (주)만나, (주)화인코리아, (주)인아정밀 등이 위문품을 전달하고 미트치과 윤창원 등 직원들이 나와 무료진료 봉사

를 펼친다.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은 지난 1993년 각 방송국 가요제 및 노래자랑에서 입상한 90여 명이 모여 노래로 봉사하는 단체로 매월 한 차례씩 양로원 등 불우이웃 시설을 방문해 지금까지 모두 420회 공연을 진행해 왔다. 문의 062-269-05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